

# 2020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 진안군, 임업인 등 내달 28일까지 접수

진안군이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과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해 6월 28일까지 2020년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이며,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대상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이며, 485억원(전국 기준) 규모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전북도 심의회를 통한 사업타당성 등 종합평가 후 8월 중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진안군은 최근 3년간 임산물가공활성화사업 1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소 등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득 증대와 임산물 6차 산업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우수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 바란다"고 당부하며 "진안군 전체면적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산림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농촌적응학교 운영 '호응'

### 20명 생활 농기계 사용방법·전기이론 등 교육 받아

진안군이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원활한 정착과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농촌적응 학교를 운영했다.

농촌적응 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귀농귀촌 교육 전문기관인 (사)농촌으로 가는 길(대표 성여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귀농귀촌인 2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관리기 등 생활 농기계 사용방법, 실생활에 유용한 용접기술 등을 비롯하여 보일러의 구조와 응급조치, 전기이론 등 적정기술과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해결, 농촌문화의 이해와 귀농귀촌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됐다. 홍삼빌에서 이론교

육을 실시하고, 안전면 지사마을에서 현장실습을 병행했다.

한 참가자는 "농촌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 교육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청 공무원들 일손 돕기 나서

### 2백여 명 6개 읍면 열매슈기 등 6월 10일까지 도울 예정

무주군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

봄철 일손 돕기는 6월 10일까지 집중할 방침으로 지난 23일에는 무주군청 기획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소 200여명의 직원들이 6개 읍

면으로 흩어져 사과와 포도 열매슈기 등을 도왔다.

농가들은 "벼농사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돼서 좀 낫지만 밭작물, 특히 고추나 과수는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농

번기 때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오늘 공무원들이 나와서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과일 봉지 씌우기와 매실 따기, 마늘·양파 수확, 고추 묘 옮겨심기, 콩·감자·옥수수 파종, 지주세우기,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철거 및 폐비닐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재원 팀장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단 기간 노동력이 집중돼야 하는 농번기에(봄철 5~6월, 가을철 10~11월) 일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부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도 참여를 요청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등과도 공조해 작업안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락과 작업도구 등은 직접 준비하고 작업농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당 작업 인원은 10~20명 단위, 작업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편성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

# 무주 지역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상 수상

### 군청 정수지 주무관·덕유산리조트 오경백 차장 행안부장관상

제26회 방재의 날 행사가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이 2019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상을,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정수지 주무관과 (주)무주덕유산리조트 패트롤 대장 오경백 차장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55, 설천면)은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철저한 전문자 정신으로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예방활동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정수지 주무관(35, 무주읍)은 재난 및 재해대책분야 담당자로서 재난·경보 시설사업 추진과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2018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등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 패트롤 대장 오경백 차장(53, 설천면)은 스키장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대원들의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훈련을 주도하고 덕유산 조난자 구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스키장 이용 고객 및 덕유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은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라며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는 한편, 재해예방과 대응, 그리고 복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6회 방재의 날 행사에는 전국 재난분야 공무원들과 포상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상과 방재기술발표, 국가안전대진단 브리핑을 비롯한 '재난안전특고세 용도 및 방침'에 관한 직무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군, '우리 쌀 활용' 교육

장수군은 지난 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7회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소규모 창업 유도로 향토식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하며 퓨전 떡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입맛을 수용하고,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트렌디한 퓨전 떡(딸기 찹쌀떡, 사브레 찰떡 등)을 만드는 실습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단순히 전통 떡과 비교하여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짧은 세대에도 통하는 베이킹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쌀 활용 교육으로 새로워진 퓨전 떡 스킬을 통한 떡 상품 능력의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나눔이

진안군은 지난 24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 및 가족 30여명과 함께 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곡성군 기차마을로 사회적응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이 행사를 실시했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문화체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적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의 장미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축제장을 자유롭게 거닐며 사진도 찍고, 축제장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도 감상하고, 축제장을 둘러보는 기차여행도 하며 장미향 가득한 오월을 만끽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여러 제약과 어려움으로 여행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오랜만에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기차도 타니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용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로 받으세요"

### 장수군보건의료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1954년생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폐렴(pneumonia)은 호흡기세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 조직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65세 이상 연령에서 23가 다당질백신 1회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렴,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증을 효과적(50~80%)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원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상담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3-350-2663)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